

제3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시 : 2015. 4. 14(화) 14:00-15:0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석자 : 서문성의장, 장민호의원, 최기표의원, 박훈성의원, 정명효의원, 천수승의원, 김병두(도연)의원, 이문선(덕중)의원, 신동호(거성)의원 이상 9명 >

< 배석자 : 민주영 이상 1명 >

< 불참석자 : 권탄준의원, 엄성민의원 이상 2명 >

사회자 : 지금부터 제35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재적의원 11명에서 참석의원 9명으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금강대학교 학칙개정(안)을 심의받고자 이렇게 본 평의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본 회의 >

사회자 :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서문성 의장 :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강대학교 학칙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 발의부서인 교무지원팀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지원팀 정명효팀장 금강대학교 학칙(안) 설명]

서문성 의장 :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성 의원 : 부칙을 보면 경과조치에 ‘가’항과 ‘나’항이 있습니다. ‘가’항은 조직변경을 표현하였고 ‘나’항은 그 조직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가’항에 회계학과에 대해서는 조직변경 내용이 없으므로 ‘가’항의 4번의 문장을 각각 분리하여야 문장이 성립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국제통상통역학과와 회계학과를 분리하여 글로벌경영/행정학부 소속 국제통상통역학과는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고 회계학과는 경영학과로 명칭변경하고 졸업생이 졸업시까지 존속 후 폐지한다가 그 내용입니다.

서문성 의장 : 앞으로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장민호 의원 : 비록 교학지원처장이지만 대학평의원회의 위원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제30조 3항의 경우 문장이 전부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및 중어, 영어 및 일어가 되어 있어서 자칫 모두 이수 해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영어 및 중

어 옆에 괄호를 이용하여 일어를 집어넣고 다른 것은 지워야 할 것입니다.

정명효 의원 : 영어와 중어, 영어와 일어 이 두세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듯합니다.

장민호 의원 : 3페이지에 제39조를 보면 학과 가로열고 전공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는데 자율전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학과라는 단어가 필요한가요?

정명효 의원 : 이것은 아래쪽에서 자율전공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복수전공의 경우 기존 재학생들은 학과에 해당되기에 학과라는 단어는 필요합니다.

박훈성 의원 : 경과조치 ‘나’항의 반가로 3번의 뒤에 5학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학칙을 변경 때 국제통상학과가 국제통상통역학과로 명칭 변경되면서 5학기까지 포함하면 모든 학생이 적용되는 사항이었고, 지금의 경우는 국제통상통역학과와 회계학과가 전공변경을 할 수 있는데 같은 학년이 존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명효 의원 : 작년 학칙 변경 시 5학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변경된 제도로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5학기 때 재적변경하면 1학기정도 유예되면 9학기 정도에 졸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박훈성 의원 : 그것은 국제통상학과가 국제통상통역학과로 명칭변경으로 연계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명칭변경은 하였지만 그 안에 내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변경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한 학기를 집어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5학기 재적변경은 특이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민호 의원 :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형식상으로는 신설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명칭변경이라 절충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박훈성 의원 : 그럼 6학기, 7학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민호 의원 : 6학기 이상은 너무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빨라도 안되기 때문에 절충으로 5학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박훈성 의원 : 하지만 예외사용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기존 5학기는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끌어당기려는 유인책인데 지금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데 억지로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기표 의원 : 전공학점이 몇 학점까지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 전공학점을 30학점으로 낮추면 3학년때도 옮길 수 있으며 3학년 2학기때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5학기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효 의원 : 전공학점이 대폭 줄어들게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 정도를 빼고는 자유로운 전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사내규 개정 시에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장민호 의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전공을 넘다들다 보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5학기라고 것을 두어 한시적으로

하면 어떤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자는 의미입니다.

최기표 의원 : 전공변경은 양쪽 전공교수가 허락하기도 해야 해서 그에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커리큘럼상 회계학과와 경영학과 그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그 커리큘럼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지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1학년과 2학년은 빨리 경영학과로 옮겨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문성 의장 : 본 학칙은 학사내규와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학칙만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37조 2항도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39조는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학사내규에 따로 정한다라고만 되어있기에 학사내규와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민호 의원 : 5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다양한 학위를 다 줘야 하는 것이지요?

박훈성 의원 : 학위의 경우 교육법에서는 대학 학칙에 정하는대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민호 의원 : 융합전공이면 무궁무진한 그 콤비네이션이 많은데 그 학위를 다 줄 수 있는지요?

박훈성 의원 : 원칙은 자율설계전공 자체가 복수전공이면 이 표 안에서 움직입니다. 학위가 불교학과 학생인데 행정학과를 들으면 학위를 무엇을 줄 것이냐는 학교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서문성 의장 : 본 학칙의 심의 검토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5학기에 재적을 변경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승 의원 : 5학기 재적변경을 없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박훈성 의원 : 이전 학칙 개정 시에는 5학기 이내로 묶으면 학생들이 전부 해당되어 마무리 되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5학기로 제한하면 6학기, 7학기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5학기과 6학기, 7학기 등을 구분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학교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서 난감하게 될 것입니다.

서문성 의장 : 5학기 재적변경 문구를 생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명효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명효 의원 : 지금 위원님들의 논의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5학기를 삭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학기에 전공을 변경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장학금 지급도 없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바로 위 문구에서 '5학기 이내에서'라는 문장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최기표 의원 : 전공이 나열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몇 학점까지 이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신경써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서문성 의장 : 교무지원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외로 판이 넓어질 것입니다. 아마 곧 학칙과 관련된 대학평의원회가 다시 열려야 할 것입니다. 학칙은 학생들의 학사와 관련되므로 굉장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안건이 없으시면

앞서 학칙 개정취지 설명시 정명효 팀장이 설명한 수료생을 재학생으로 본가와 일부 문구수정, 5학기 재적변경 이하 문구 삭제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전 의원 : 동의합니다.

서문성 의원 : 앞으로도 학칙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5차 대학평의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치다.>